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1월 26일(금)
--(윤력 10월 22일)--
Пятница
26 ноября 2021г.
№ 45 (1196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20일(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본 센터 건립 15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관련 기사 3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친애하는 여러분!

11월28일(일)에 우리는 가장 선하고, 마음 따뜻한 기념일 중 하나인 어머니의 날을 기념합니다.

이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품에서 자신을 찾도록 도우신 어머니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가정, 직장, 사회활동 등에서 많은 짐을 어깨에 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놀라운 방법으로 어머니들은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모든 것을 해내십니다.

어머니들께서 가족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지원이 체감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할린주에서 우리는 폭넓은 사회적 지원을 하고,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편안한 생활을 위한 여건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들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날은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기념일입니다. 일년 내내 어머니들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하십니다!

사랑스런 여성분들의 명절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바람이 이뤄지고, 항상 희망을 품으시며,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한국 정부, 재위동포정책위서 사할린동포 국내 정착 지원 논의

2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려

정부는 23일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할린동포법 시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

할린동포 및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원회에서 ▲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국내체류 동포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사할린동포법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주지사, 노워알렉산드롭스크 계획 지역의 일부 도로 공사 점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출장 중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도로' 국가 기획의 일환으로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11월에는 노워알렉산드롭스크 계획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클류치 마을에 소비에트카야 거리 - 시네고르스크 차로에서부터 일피스카야 거리까지의 구역 - 의 주요 공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총공사 작업이 완료되었다. 950m 도로 구간을 아스팔트로 포장했으며 도로의 폭은 양방향 각각 3.5m로 총 7m이며, 건설된 양방향 인도는 총 2.25m이다. 4개의 버스 정류장과 가로등도 설치되었다. 공사 비용은 1억6천3백만 루블리가 들었으며, 완공 예정이 2022년도였으나 신속하게 공사자가 작업을 완료했다.

사할린주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실시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도로' 국가 기획의

일 환으로 올해 18만m² 이상을 아스팔트로 포장한다. 네웰스크 - 토마리 - 크라스노고르스크와 홈스크 지역의 노워시비르스코예와 체호브 마을 경계에 있는 샤희초르스크 공항- 토마린스코워 도로 구간이 정비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심 광역에서는 소비에트카야 거리를 포함해 레닌 거리와 우크라이نس카야 거리, 4번 젤레즈노다로즈나야 거리 구간도 아스팔트로 포장했다.

도로 공사 비용을 6배로 증가시켰는데 2020년에는 2억5천2백만 루블리였고, 2021년에는 이 항목으로 15억 루블리가 배당되었다. 이 공사 비용으로 겨울철 이후 주 전 지역 도로의 패인 구덩이를 공사할 수 있었으며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총면적 7만6천m²에 달하는 8천 개 도로의 결함을 제거했다.

단신

영주귀국, 11월 27일에 1차로 91명 출국 예정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 사업으로 사할린동포 350명이 한국으로 영주귀국하게 된다. 사할린에서 영주귀국에 대한 설명회는 지난 8일, 16일 두 차례 진행되었고,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91명이 1차로 27일(토) 한국으로 떠난다. 2차 출국일은 12월 4일(토)로 정해진 가운데 이때 91명이 귀국한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 출장소 관계자가 전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사할린, 쿠릴 주민과 직접 대화

11월 30일(화) 15시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민들과의 대화가 실시간 생중계된다. 생중계는 'OTB-사할린' 방송이 진행하며, 주지사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전달된다. 직접 대화의 주제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설정한다. 방송상 주민들의 훨씬 실질적이고, 흥미로운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화상(:8(4242) 67-03-91)으로도 질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문자나 동영상의 방식으로 질문이 접수된다. 질문들이 직접 대화상 공개되지 않더라도 정부 집행기관의 지도자들과 지방 단체장들이 모든 질문을 접수해 정리하여 질문자들에게 답변을 전달한다.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 상징 및 표어 공모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상징 및 표어 공모전의 수상자와 우승자의 작품은 기념일을 맞이하는 행사에서 이용될 예정이다. 1월 2일은 현재 국경에서 사할린주 형성 75주년을 맞는 날이다. 작품 접수는 12월 23일(목)까지며, 12월 24일(금) - 29일(수)까지 인터넷상으로 공개 투표를 하고, 12월 30일(목)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할린과 쿠릴에 거주하는 14세 이상의 러시아 연방 국민, 사할린 지역에 등록된 법인도 상징과 표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는 상징이나 표어 중 하나만 제출할 수 있다.

새고려신문

2022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7루블리 0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70세에 시를 짓기 시작, 영주귀국을 앞둔 전영희 전 한국어 교사 '조상과 부모님들의 조국으로 돌아가 더 깊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올해 새고려신문에 한 사할린동포가 몇 편의 시를 써 기고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 전 한국어 강사인 전영희 (1951년생) 선생이다. 전 선생이 쓴 사할린의 여러 계절에 대한 시들이 신문에 실렸다.

그녀는 올해 만 70회 생일을 맞는다.

전 선생은 사할린의 탄광마을 와흐루셰브에서 태어났다.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오게 된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게 되었고, 건강 상태가 나빠진 아버지가 더 이상 탄광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자 식구들은 우글레고르스크 구역 크라스노폴리에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전영희 선생은 조선학교 5학년을 마치고, 정부령으로 조선학교가 폐교되자 러시아 일반 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했다.

큰 식구(8남매)는 1960-1970년대 당시 대다수 사할린 한인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살아갔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려고 애썼고, 자녀들은 공부하러, 부모님의 일을 도우러 바빴다. 전 선생의 아버지는 크라스노폴리에 솜호즈(노동집단)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큰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큰 밭에서 농사일을 했다.

"그때 그 시절, 굶주린 세월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자녀 8명 모두 공부를 시키며 키웠죠. 너무 고마운 우리 부모님!"이라며 전영희 선생이 이야기를 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1977년에 돌아가셨다. 그때 전 선생은 가족사도 잘 몰랐고, 사할린에 오게 된 배경이나, 아버지의 고향조차 몰랐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 1세분들 대다수가 사실은 그 당시 자신에 대해, 억울한 강제징용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말하지 않았다. 사할린의 1세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쉽게 말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심정이 어떠했는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전영희 선생은 무국적자로서 이르쿠츠크에 가서, 그곳 사범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잘 치르고, 영어교육학과를 전공하게 되었다.

졸업하고 나서 이르쿠츠크에 남아 시집도 가고, 두 아이(1남1녀)를 두게 되었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연구소에서 전문 번역자로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 사할린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외국어 교사 자격증도 있고, 조선학교에서 배운 것도 되살리고 싶었다. 마침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5학교에 한국어 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1991년부터 이 학교에서 5년 동안 한국어 가르쳤다.

1990년대는 러시아 역사에서는 경제가 붕괴되었던 시기이며, 지식인들(의사, 교사 등)이 월급을 못 받아 일자리를 그만두고 판매원이 되거나 장사나 무역으로 직업을 전환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많은 사할린 한인들이 돈벌이를 하러 한국에 나가기도 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 전영희 선생 역시 한국으로 나가 몇 년간 여러 일을 해보았다고 한다. 이후 사할린으로 돌아와서 2008년부터는 <뽕란카> 유치원에서 유아들에게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를 익히게 하고, 동시에 사할린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였다. 유치원 같은 경우 한국어 교육은 한국에 있는 단체인 사할린 한국어교육협회(회장 임태식)가 지원했다.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동안 심리학도 배웠어요. 각각 아이들의 성품이 다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재미있고 활기가 돋는 것 같아요."라고 전영희 선생이 말했다.

얼마 전 전영희 강사는 열정을 갖고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를 전수하며, 14년간 유치원에서 헌신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전영희 씨는 사할린 한국교육원에서도 13년간 강사를 역임했고 작년부터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를 맡았다. 2021년 끝무렵, 이제 영주귀국하게 되어 얼마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필자는 전영희 선생에게 간단한 일문일답을 부탁했다.

- 한국어로 시를 쓰시게 된 계기는요? 주제는 어떻게 정하시는지요?

- 시는 2021년부터 아무 준



비 없이 쓰기 시작했는데요, 주제는 4 계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첫 시는 <사할린의 눈>입니다. 창밖을 보면서 눈 오는 모습, 제가 느낌대로 썼지요.

- 좋아하시는 사람의 성품은?

- 책임성과 도덕성.

- 좋아하시는 계절?

- 여름.

- 좋아하시는 색깔?

- 체비꽃 색깔, 연한 하늘색.

- 좋아하시는 책?

- 철학 책과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 좋아하시는 명언이나 슬로건?

-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명언은 '오만한 영혼은 분개하는 영혼이다. (Высокомерная душа - это душа испытывающая обиду)'. 슬로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광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Восхваляйте Бога и слава вернётся к вам)'. 사실 시를 쓰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 취미와 여유 시간은

사할린의 늦은 여름

전영희

이 세상에 나무들이 없었더라면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이 땅에 이사 온 지 십오 년,
그동안 창밖을 보면서
사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봄은 처녀, 여름은 어머니, 가을은 미망인
겨울은 계모라는데,
봄 여름엔 꽃이 피니 처녀 같고
나무들 푸르려 산들은 예쁘고 넉넉한 어머니지만
가을은 더욱 아름다운, 왜 미망인인가요?

사할린의 구월은
여인의 여름이라고도 하지요.
풍성한 하늘은 높고, 맑은 살찌는 계절,
단풍이 들고 낙엽은 집니다

그리 멀지 않은 산에는
울긋불긋한 옷감이 펼쳐지고요,
정원에는 마가목 나무가
홀로 붉게 아름다워요.
가지에는 주렁주렁
빨간 구슬 열매들이 새들을 부르고
겨울 태풍이 지나가는 겨우내내
찰랑대며 달려 있어요

아침마다 동산에서 해는 솟아
이 도시의 새날을 밝혀 주면
드높고 파아란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아, 이것이, 지금 그대로
사할린의 늦은 여름이구나!
속으로 여러 번 외쳐 봅니다.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 취미는 건강에 대한 책과 비법을 연구하는 것. 여유 시간이 있으면 친구들과 만나고 손자, 손녀들을 교육하기, 날씨가 나쁠 땐 성경공부하기 좋아해요.

내일, 11월 27일(토) 전영

희 선생은 올해 영주귀국 지원사업 대상자로서 한국으로 영주귀국하게 된다. 어려울 때 작가가 꿈이었던 그녀는 "조상과 부모님들의 조국으로 돌아가 더 깊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메아리' 뮤직비디오 축제 우승자 시상

사할린에서 '메아리' 뮤직비디오 축제가 개최된다. '메아리' 축제에는 가수, 무용단, 감독, 시나리오 작가, 영상 촬영가, 음향 감독, 편집자 등이 참여하는 현대적 방식의 창작 활동 경연이다.

제2회 '메아리' 뮤직비디오 축제의 심사위원단은 다음과 같다: 로만 마나킨(음악 연출가, 음향 감독, 심어송 라이브), 알랴나 바리노와, 이 알렉산드르(배우 겸 감독, 각본 및 감독 고급 과정 전공, '2020 - 황금마스크' 러시아 연극상 수상 후보), 김 이고리(감독, 부산 임권택영화예술학교 졸업, 제1회 진주 영화제(2011년)에서 관객상 수상, '세계의 끝'(2015년, 2019년) 사할린 국제영화제에서 제작 발표에 2회 우승, '로스 엔젤레스 영화 축제(2016년)'에서 준결승에 진출), 드미트리 신자코브(촬영가, '티비'텔레비전 예술 부문에서 높은 성과로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상 수상).

축제는 각 부문별 - '우수 감독상', '우수 촬영상', '우수 영상 편집상', '우수 연기상', '우수 만화 영화상', '독창적 아이디어상', '대상' - 로 진행된다.

심사위원단이 이미 참가자들의 48개 작품들을 심사한 가운데 수상자 명단은 12월 8일(수) '옥차브리' 영화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갈라 콘서트에서 알 수 있다.

Состоится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фестиваля музыкальных клипов "Отклик"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ходит фестиваль музыкальных ви-

деоклипов "Отклик". "Отклик" — современный формат конкурсной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яет музыкальн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режиссеров, сценаристов, операторов, звукорежиссеров и мастеров монтажа.

В жюри второго фестиваля музыкальных видеоклипов "Отклик" вошли: Роман Манакин (саунд-продюсер, звукорежиссёр, сонграйтер), Алена Барина, Александр Ли (актер/режиссёр, выпускник высших курсов сценаристов и режиссёров, номинант на российскую театральную премию "Золотая маска — 2020", Игорь Ким (режиссер, выпускник школы кино и сценических искусств имени Им Квон Тэка, Пусан, обладатель приза зрителей "I-Movie фестиваля", Чинджу (2011), дважды победитель питчинга на СМКФ "Край света" (2015, 2019), полуфиналист кинофестиваля CINE fest в Лос-Анджелесе (2016)), Дмитрий Синдяков (оператор, обладатель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телевизионной премии за высшие достижения в области телевизионных искусств "Тэффи").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по номинациям: "Лучшая режиссерская работа", "Лучшая операторская работа", "Лучший видеомонтаж", "Лучшая актерская игра", "Лучшая анимационная работа",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идеи", Гран-при.

Жюри уже оценило 48 работ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можно будет узнать на гала-концерте,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8 декабря в большом зале ККЗ "Октябрь".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올해의 성공' 기획 우승자 선정**

'2021 - 올해의 성공' 기획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

작되었다. 이 기획의 우승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선정하여 올해 총결산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의 참여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신청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12월 1일(수)까지 접수한다.

'올해의 성공' 기획은 시 행정부가 진행하며 각 부문 - '올해의 건설', '올해의 기념일', '올해의 기획', '올해의 공인', '올해의 생산품', '올해의 도서', '도시의 시설', '안전', '보건', '교육', '올해의 스포츠맨' - 에서 인터넷 투표를 하도록 한다.

기획에 참가를 위한 후보 등록은 이메일 주소(:e.ponomarenko@yuzhno-sakh.ru)로 할 수 있으며 메일 제목으로 '올해의 성공'을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참가 부문, 성, 이름, 부칭 및 직업, 기획 단체의 명칭 및 사례, 생산품, 성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 공개 링크나 사이트, 해당 후보자의 연락처.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넷 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참가자가 우승자로 선정된다. '올해의 성공' 기획의 총결산은 성대한 시상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시청 홍보실이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цы выберут победителей проекта "Успех года"

Проект "Успех года — 2021" стартов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иглашаю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одведению итогов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назвав имена земляков, достойных зва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проекта. (8면에 계속)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건립 15주년 기념

<우정의 집>으로 인정 받는 곳

지난 20일(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본 센터 건립 15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참가자 수가 제한되었지만 사할린주·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정부, 사할린 주두마, 사할린주 사회원, 주 민족단체연합회 등 관계자, 한국 및 일본 외교관, 사회단체 대표자, 후원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축사를 한 왜채슬라브 예피파노브 주정부 제1 행정부 실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알렉세이 프리쭈크 제1부시장, 사할린주 사회원 블라지미르 이콘니코브 의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총영사관 마사타카 아바다 총영사 대행이 인사말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운영하는 한인문화센터의 다양한 활동과 한민족 문화 보급과 사할린 사회에서 기여와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

광기동 소장은 "지난 15년간 사할린 한인문화센터는 이름 그대로 사할린에서 한민족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청소년은 역사 캠프로, 어르신들은 경로 잔치로, 모든 세대가 무시로 드나드는 문화센터는 사할린동포들에게 든든한 또 하나의 내 집이고 사할린을 떠나 한국과 러시아 및 세계 각지에 사는 사할린 한인 동포들에게는 '사할린'하면 생각나는 그리운 고향집 같은 곳입니다."라고 말했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는 1998년 11월 한·일 양국 외무장관의 합의 아래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대한적십자사와 일본적십자사로 구성된 <사할린 거주 한국인 지원 공동사업체>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일본 적십자사의 참여로 건설되었다.

착공: 2004년 8월
준공: 2006년 3월
개관 기념식: 2006년 11월 4일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은 이날 문화센터 건립, 활동에 공로를 세운 전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인 김흥지, 박해룡, 임용균 회장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현재 문화센터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흥지 현 주한인협회 고문은 이날 한인문화센터 설립 배경을 알리기도 했다.

한인문화센터는 자주 <우정의 집>이라고도 한다. 이유는 수많은 민족단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치기 때문이다. 주한인협회는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무료로 공간을 제공한다. 이날 타타르, 부랴트, 알타이, 키르기즈 등 많은 단체들이 고마움을 표했다. 주한인협회의 지방 한인회장들의 따뜻한 축하 인사와 기원도 감동적이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 <하늘>타악기 앙상블의 공연은 물론,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강팔용·최 율리아·우 미하일 등 동포가수들의 멋진 무대가 펼쳐져 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한국 정부, 재워동포정책위서 사할린동포 국내 정착 지원 논의

2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려

(1면의 계속)

정 장관은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동포들이 직면한 다양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 고려인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동포와 소외된 동포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래 동포사회의 주역인 차세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들이 모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뒀다. 앞으로 당 부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



이 지속할 것에 대비해 출입국 관련 애로사항 해소,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

기로 했다.

또 사할린동포법에 따른 영주귀국(해외이주자가 한국으로 다시 생활 근거지를 옮김)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적 보완 작업을 하기로 했다.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따라 올해 약 340명이 귀국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1996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됐지만 올해 9월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됐다.

[서울=뉴시스]

사할린 월례포럼

'사할린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게 되어'

KIN(지구촌동포연대), 전북대 고려인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사할린 월례포럼이 지난 21일(일)에 열렸다. 마카로프 한인사를 주제로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포럼은 "마카로프 한인 -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북방의 얼"의 저자 비시넵스키 니콜라이의 강연과 저서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고영순 마카로프 한인회장, 박순옥 사할린한인협회장, 임엘비라 사할린국립대학 역사·언문·동양학 대학 학장, 진 율리아 사할린향토박물관 연구원, 번역자인 이선영 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 출장소 전 행정관, 방일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번역자인 이선영 씨는 이 책을 일본시대, 소련시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로 나누어 마카로프 지역 한인에 대한 역사를 다루었다고 소개했다. 번역을 하며 지명과 이름 등에 대하여 한국어의 표기에 체계적으로 보완이 더 필요함을 지적했다.

저자 비시넵스키(Вишневский Н.В.)는 2017년 마카로프 시장의 제안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러시아 학자들, 일본의 학자들, 사할린한인협회 등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2020년에 첫 출판된 이 저서는 마카로프 지역에 한인들의 출현과 증가, 그리고 개인들의 활동상을 통하여 구체적인 한인들의 역사를 드러내었다. 가라후토의 개발, 발전을 위하여 특히 제지, 석탄 분야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많이 이주했음을 지적하며 모토도마리라 칭했던 마카로프 지역으로 처음 정착한 주민들 또한 이러한 산업을 위해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1925년 이후 북사할린에서 내려온 한인들이 정착했고, 이후 강제동원되어 사할린에 온 한국 출신의 한인들과 해방이후 북한 파견노동자들까지, 같은 민족 내에서도 다양한 이주 경로의 한인들이 모여들어 조선인촌을 형성한 매우 역동적인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 해방 이후에는 마카로프가 소련과 일본의 종전협정이 정식 조인된 곳이며, 7년제 조선학교 등이 생기면서 민족문화의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 곳이 마카로프 지역임을 밝히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한인들은 '우리 함께' 같은 국제 페스티벌이 개최되면서 한국의 제주도와 대외적인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저서에 대해 한혜인 박사는 "사할린 한인에 대해 한국에서는 강제동원만 강조되어 알고 있는데, 사할린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게 되어 중요한 책이라 생각되며, 책을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책에 대해 글을 써보고 싶다."는 소감을 말했다.

고영순 회장은 "지역에서 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의구심도 있었지만 나왔을 때 놀랍다는 반응과 책에 나온 가족들로부터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다. 앞으로 자료, 인터뷰들을 제공받으면 다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에서도 출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일권 교수는 "사할린 현지에서 저자와도 만나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국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45년 8월 22일 사할린에서 소련과 일본 간 종전선언 합의가 마카로프에서 열렸다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51년도 한인들이 공산당 건설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심이 시리토루 조선학교 출신,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왔고, 서로 연결되어 사회를 이루었다는 점이 입체적으로 조명되고 있다."면서 "공동체의 기억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각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어 기억의 유산들을 자주 만들어 가는 것이 각각의 (사할린 한인) 문제를 조명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런 시도가 다른 지역들에서도 계속 연구업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종합적인 계획들이 구체화되서 학술연구, 자료발굴을 통해 한인의 활동이 다시 재현되는 시도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며 간단히 서평과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진율리아 박사, 홍웅호 박사 또한 이번 저서의 역사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 사할린의 다른 지역에 대한 유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기를 희망하였다.

박순옥 사할린한인협회장은 "사할린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참여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연구를 해주신 저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은 사할린 한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책이고, 한인들의 실생활들을 상세히 보여주는 책이라 반갑습니다. 부모세대로부터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를 전달받지 못한 것은 아주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부모세대의 이야기들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것 또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더 고마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와 사업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라며 사할린한인협회는 여러 지역의 한인사 연구에 언제나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지원도 필요하고, 연계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최상구, KIN 사무국장)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Более 180 сахалинцев отправятся на ПМЖ в Корею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27 ноября 2021 г.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отправится первая групп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оставе 91 человек. В основном, их новым местом жительства станут города Ансан, Инчон, Кимпхо и др. Перед тем как отправиться в свои новые квартиры, репатриантов ждет 10-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В аэропорту Инчона их встрет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торая группа должна отправиться в Корею 4 декабр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этот день отправится группа в составе 91 человека.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отпраздновал 15-летие

20 но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Он стал финальной точкой в череде мероприятий, приуроченных к 15-летию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 юбилеем ККЦ поздрав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э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ведомст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Японии, а также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диасп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ой выступили коллективы, базирующиеся в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ансамбль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анца «Ариран», ансамбль барабанщиков «Ханыль», певцы Кан Пал Ен, У Михаил, Че Юлия и др. Ярким украшением праздника, как всегда,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коллективов ДШИ «Этнос».

Как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церт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в Инстаграм на официальной странице РООСК.

Напомним,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был построен на деньг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рамках возмещения морального ущерба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озведение центра началось в 2004 г. и закончено в марте 2006.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4 ноября 2006 г.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15-летия в октябре-ноябре прошли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как: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их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Фестиваль ссы-рым,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пянсе,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Кореи, фотовыставк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В Сеуле появился памятник Льву Толстому

22 ноября в сквере у Дома литературы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памятника выдающемуся русскому писателю Льву Толстому.

В мероприятии, которое вошло в программу проекта "Русские сезоны",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ультуры, искусства РФ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также сотрудники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и и местные официаль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деятели. Комментируя событие, советник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ы и правнук писателя Владимир Толстой напомнил, что как раз "сегодня отмечается ровно 111 лет со дня похорон Льва Николаевича Толстого", и указал на символизм вс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у слова "памятник" есть очевидный корень - "память". Люди уходят, но они оставляют о себе память, и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Лев Толстой оставил огромное наследие..."

Правнуку писателя место, где расположен памятник - на склоне горы Намсан в центре Сеула,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Это удивительное, прекрасное место... Лев Николаевич порадовался бы. Он очень любил природу, жизнь...", - признался Владимир Толстой.

Представлявший южнокорейскую сторону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У Ён У отметил, что Корея связана со Львом Толстым с 1896 года. "Советник короля Кореи Юн Чи Хо посетил Россию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ронации Николая II, а позже в своем дневнике он оставил запись о том, что хорошо провел вечер, читая роман "Война и мир". Со временем корейские читател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различным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Толстого, которые оказали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как на интеллигенцию, так и на мыслителей



Фото: Станислав Варивода/ТАСС

того времени, а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по сей день пользуются большой любовью у всех корейцев", - рассказал чиновник.

Памятник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большой черный бюст на светло-сером постаменте, гд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ыгравировано "Лев Толстой". Автор работы - молодой скульптор Екатерина Пильникова, которая закончил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ую академию художеств. Как отметило ТАСС, авторами проекта выступили Алексей Лебедев, директ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проекта "Русские сезоны", и Семен Михайловский, ректор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академии художеств имени Ильи Репина.

Напомним, что в 2013 году в Сеуле уже был открыт памятник другому выдающемуся деятелю росси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 поэту Александру Сергеевичу Пушкину. В 2018 году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явился памятник известной 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е Пак Кён Ни. По мнению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туризма и спор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 Ён У, подобная традиция является "значимым поводом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бы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82-ая годовщина памяти о борцах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13 ноябр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академическом корейском театре прошел День памяти о борцах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общественным фондом «Часон», объединяющим казахстанских потомков героев и патриотов Коре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Фонд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Алмат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Уже 82 год корейцы во всем мире отмечают День памят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который занимает важное место в истории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Ежегодно в этот день по традиции внуки и правнуки героев антияпо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собираю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чтить светлую память своих предков.

До начала официальной церемонии в фойе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состоялся конкурс лучших детских рисунков на тему «Дорога памяти и славы»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ана тематическая выставка. Памят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чалась с прослушивания гимнов Казахстан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ле чего все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почтили светлую память героев, отдавших свою жизнь за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Почетными гостями памят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



блики Корея в Алматы,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член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Часон», Фонда имени Хон Бом До,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которые в своих торжественных речах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и участников памят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Затем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томков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памятными подарками и был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уже ставшего традиционным детского конкурса рисунков, победители которого также были отмечены призами.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 культурной, свои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зрителей порадовали артис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вокалисты народного хора «Родина» и юные танцовщицы ансамбля «Пидульги».

Все г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лучил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и лунные календари с портретами национальных героев Кореи.

(Источник: газета «Коре Ильбо»)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ун Чжэ Ин: Рост цен на жильё – самое печальное событие

Резкий рост цен на жильё - самое печальное событие за всё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на посту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жителей страны, состоявшейся 21 ноября в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и KBS.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сказа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олжит усилия по стабилизации цен на жильё, которые пока не показывают признаков снижения. О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поддерживает реш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омощи наиболее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Мун Чжэ Ин напомнил, что число подтверждённых случаев COVID-19 растёт параллельно с ростом числа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В этой связи необходимо соблюдать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в том числе,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Он отметил, что рост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был предсказуемым, поскольку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мягчили ряд ограничений, выразив озабоченность по поводу нехватки коек в отделениях интенсивной терапии, так как число тяжелобольных пациентов стало расти более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чем раньше.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звал ускорить темпы ревакцинации, не исключив возможности ужесточения правил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если рост числа тяжелобольных пациентов представит серьёзную угрозу для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у удастся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больничных коек и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для лечения тяжелобольных пациентов, чтобы продолжить поэтапное возвращение к обычн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Во встреч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участвовали около 300 граждан страны.

Уровень риска COVID-19 в РК «высокий»,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 «очень высокий»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ценило уровень риска в стране для COVID-19 как «высокий», что на две ступени выше, чем раньше, когда он оценивался как «минимальный». Уровень риска для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включающего Сеул, Инчхон и провинцию Кёнгидо, признан как «очень высокий», что также на две ступени выше, чем «умеренный». Уровни риска для COVID-19 оцениваются по пятибалльной шкале, исходя из степени занятости больничных коек для пациентов в критическом состоянии, количества пациентов с серьёзными симптомами и пациентов старше 60 лет.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олдень 22 ноябр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907 человек ожидали госпитализацию, которая откладывается из-за нехватки коек. Это на 103 человека больше, чем накануне. Среди них 66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70 лет, 440 человек имеют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в том числе, гипертонию и диабет.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7:00 21 ноябр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было занято 83,3% коек для пациентов в критическом состоянии, и лишь 116 свободных мест. Показатель по стране в целом составил 69,5%. Показатель выше 70% оценивается как критический.

BTS – первая азиатская группа, получившая высшую награду AMA

Южнокорейская бойз-группа BTS вписала ещё одну почётную страницу в историю К-поп в понедельник, став первой азиатской группой, которая за свою песню Butter получила высшую награду American Music Awards (AMA) – Артист года. Вручение наград 2021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21 ноября в Microsoft Theater в Лос-Анджелес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сполнители смогли обойти в борьбе за награду таких мировых звёзд как Ариана Гранде, Дрейк, Оливия Родриго, Тейлор Свифт и The Weeknd. Группа BTS номинировалась на награды American Music Awards четыре года подряд и каждый раз их получала. В 2018 году она завоевала награду в номинации «Любимый артист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в 2019 году три награды - «Любимый артист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Любимый поп/рок-дуэт/группа» и «Тур года», а в 2020 году две награды - «Любимый поп/рок-дуэт/группа» и «Любимый артист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Чо Су Ми включена в Азиатский зал славы в Сиэтл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оперная певица Чо Су Ми, отметившая в этом году 35-ю годовщину своего дебют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цене, стала первой гражданкой РК,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в Азиатском зале славы в Сиэтле.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продюсерское агентство SMI Entertainment.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состоялась 13 ноября и транслировалась онлайн. Азиатский зал славы был учреждён в 2004 году, чтобы отметить вклад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зии в мировое развитие. В нём представлены такие выдающиеся личности, как актёр Брюс Ли, фигуристка Кристи Ямагучи, журналистка Конни Чунг и американский актёр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Дэниел Дэ Ким. В этом году были отобраны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десять человек. Помимо Чо Су Ми в их число вошли американска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ница инди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ндра Нуйи, занимавшая по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компании PersiCo, американский музыкальный продюсер кита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Стив Аоки и другие.

(RKI)

Умер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Чон Ду Хван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а 90-м году жизни в своем доме скончался экс-президент Чон Ду Хван, который правил страной с 1980 по 1988 гг. До самого последнего момента жизни фигуру Чона сопровождали скандалы, а сам он является, пожалуй, самым непопулярным из всех лидеров Южной Кореи.

Еще не успели похоронить экс-президента РК Ро Дэ У, как сегодня пришла новость и о смерти его главного соратника - другого бывшего лидера страны. Во вторник в 8 часов 40 минут утра в своем доме в Сеуле в квартале Ёнхидон потерял сознание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Чон Ду Хван. Прибывшие по вызову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рачи и полиция констатировали смерть некогда влиятельного политика.

Если Ро Дэ У не пользовался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цев, то Чон, пожалуй, имеет все шансы войти в историю вообще как самый нелюбимый жителями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Если попросить корейцев резюмировать главные факты о нем, 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ет следующее: "генерал, который совершил переворот, незаконно захватил власть, кроваво подавил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восстание и до конца жизни отказывался извиняться за свои деяния, а также не выплатил штрафы".

Чон принадлежит к плеяде "генералов-политиков", которые правили Южной Кореей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есятков лет. Чон родился 23 января 1931 года в уезде Хапчхон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Кёнсан, что на юго-востоке Кореи, выбрал военную стезю, поступив в Академию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где познакомился с Ро Дэ У, с которым потом он правил страной.

Выпустившись из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в 1955 г. в звании лейтенанта, он в итоге дослужился до звания генерала армии.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ал переворот генерала Пак Чжон Хи в 1961 г., но затем отклонил предложение Пака перейти в политику, сказав, что "в армии тоже должны быть полностью преданные вам люди". Пак оценил преданность Чон Ду Хвана, который стал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опор президента в армии. Чон сделал быструю карьеру по военной линии,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оходил военную подготовку и обучение в США на курсах спецназа,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войне во Вьетнаме, где войска РК были в качестве союзников американцев. Чон прославился тем, что, отвечая за охран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в Сеуле, настоял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оружить резиденцию минометами, считая, что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Впрочем, минометы Пак Чжон Хи не спасли, но когда 26 октября 1979 г. его убил один из подчиненных, то Чон, будучи Командующим управл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К, вел следствие по делу об убийстве политика и использовал ситуацию для своего возвышения.

Далеко идущие амбиции Чон теперь проявились быстро. Уже через полтора месяца 12 декабря 1979 г. он совершил военный переворот и захватил власть в свои руки.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ключевую роль сыграл генерал Ро Дэ У, который привел преданный ему спецназ в Сеул и нейтрализовал всех тех, кто отказался подчиниться новому диктатору.

Чон никогда не пользовался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и понимал это. Он добился утверждения системы не прямых лидеров президента, понимая, что через "обычную систему" выборов он вряд ли получит пост. В итоге он был официально провозглашен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днако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наелся" жестким правлением Пак Чжон Хи и не желал продолжения подобного же. Уже в мае 1980 г. в городе Кванчжу, что на юго-западе Кореи, вспыхнул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восстание,

для подавления которого Чон Ду Хвану пришлось задействовать армию. Ценой сотней, если не тысяч человеческих жизней восстание было подавлено, но сопротивление правлению Чона в Корее продолжалось, а трагедия в Кванчжу стала главным черным пятном на совести политика. 1980-е запомнились многим в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постоянные бои студентов, рабочих и проч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ребовавших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реформ, против полиции и армии. Спросите тех, кто был студентом в то время,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ответят, что они больше провели время в демонстрациях протеста, чем на лекциях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без изменений все может дойти до восстания всей Кореи проти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роме т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после долгих лет бурного роста пережила несколько болезненных кризисов, что усилило недовольство народ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властям.

В итоге Чон вынужден был заявить о начале реформ и своем уходе с поста президента без попыток переизбрания, оставив реализацию этих начинаний Ро Дэ У. Избрание Ро президентом Южной Кореи в 1988 г. стало своего рода гарантией, что Чон сможет жить более-менее спокойно хотя бы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Чон попытался скрыться от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ицания в горах Сораксан, где достаточно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жил в монастыре Пэктамса в качестве монаха, замаливая грехи. Однако уже в 1996 г. и Чон Ду Хван и Ро Дэ У оказались на скамье подсудимых. Их обвинили в различных преступлениях. Чон был признан виновным в военном перевороте, мятеже, незаконном захвате власти, коррупции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преступлениях. Кадры того, как из его дома целыми грузовиками вывозили хранившуюся там наличность, облетела мировые СМИ. В итоге Чон был приговорен к смертной казни, а Ро Дэ У к длительному тюремному сроку. Впрочем, достаточно скоро Чону "высшую меру" заменили на пожизненное заключение, а уже через два года в 1997 г. рад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имирения президент РК Ким Ён Сам амнистировал Чона и Ро. Это решение поддержали и все кандидаты в президенты,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 и Ким Дэ Чжун, пришедший к власти уже в феврале 1998 г. и в свое время лично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вший от действий "генералов-президентов", включая Чон Ду Хвана.

"Тени прошлого", несмотря на амнистию, продолжали преследовать Чон Ду Хвана. Он до конца отказывался выплачивать большой штраф, к которому его приговорили за преступления, ссылаясь на свою бедность и слабое здоровье, а сам при этом спокойно играл в гольф, что вызвало бурю негодования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В отличие от Ро Дэ У, который хотя бы через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звинился за подавление восстания в Кванчжу, Чон Ду Хван до конца жизни так и не признал себя виновным и не считал, что сделал что-либо плохое в мае 1980 г. Его имя до сих пор лучше не упоминать в Кванчжу, где о нем говорят только с ненавистью.

До самого последнего момента жизни Чона его вызывали в суд для расследования обстоятельств подавления восстания 1980 г., тогда как он путем всяческих уловок пытался избежать общения со следователями и старался избегать посещения Кванчжу, где велись слушания. Точку всем этим скандалам вокруг него поставила смерть политика утром 23 ноября 2021 г.. До своего 90-летия он не дожил два месяца. Напомним, что менее чем месяц назад скончался его соратник и друг экс-президент Ро Дэ У. Как отмечают местные СМИ, из-за доминирующего в Кореи к Чону отрицательного отношения, низ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похороны пройдут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почестя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557 руб. 0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П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ускорить запуск новых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временный объект ЖКХ построили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Новые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мощнее действующих – их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достигает 2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в сутки. Этого хватит,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качественным водоотведением существующую и перспективную застройку. 23 ноября объект осмотр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взяли курс на улучше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на островах. Реконструкция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 важ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этой большой работы. Ключевая задача на ближайшую трехлетку –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и построить несколько крупных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Это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защитить залив Анива от стоков,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Что касается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 они имею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города. Скоро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построят много нового жилья. Важно, чтобы возведение домов шло синхронно с развитием местной системы ЖКХ.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28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Современные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позволят обеспечить дома качественным водоотведени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а началось в 2020 году на улице Науки. Площадку разместили рядом с действующими очистными сооружениями. Рабочие смонтировали модульную станцию полной биологической очистки воды, наружные сети канализации, тепловые сети и локальные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ливневых стоков.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на объекте завершено комплексное опробова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ства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станцию запустят в течение 4 месяцев.

– Старые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реконструировать. В будущем их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будет увеличена с 800 до 2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в сутки, – отметила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истр ЖКХ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Напомним, ране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о планах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крупных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овые объекты ЖКХ запустят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а также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и Анивском районах.

Определен подрядчик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ирекция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вела финальные итоги аукциона.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о ООО «Региональная строительная компания».

– Надежное воздушное сообщение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уществующей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е аэро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чти 60 лет, она практически исчерпала свой ресурс. Поэтом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ой. Наряду с новым аэровокзальным комплексом введение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ПП позволит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ть грузо- и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и и повысить надежность сообщени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ую полосу построят рядом с действующей, со смещением западнее на 300 метров. Длина ВПП составит 3400 метров, ширина 60 метров, с тремя соединительными дорожками.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должны в 2025 году. Прежнюю ВПП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как полноценную магистральную рулежную дорожку, которая также послужит аэропорту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регулярности полетов.

Напомним, вопрос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ой ВПП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нимал перед федер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В итоге инициативу главы региона поддерж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Кроме того,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держало инициативу губернатора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егион получит более 2,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виде бюджетного кредита.

Ввод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ой ВПП позволит принимать все типы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А благодаря повышению категории аэродрома будут снижены эксплуатационные метеоминимумы. Это приведет к повышению регулярности рейсов и сведет к минимуму сбои из-за неблагоприят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капремонт дороги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ерил, как были проведены работы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В ноябре в селе Ключи, которое находится в границах планировочного района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завершил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улицы Советской – на участке от автодороги на Синегорск до улицы Альпийской.

– Важно, что на этом участке предусмотрели пешеходную зону, уличное освещение. Теперь людям комфортно будет не только ездить, но и ходить по этой дороге. Этот объект входит в нацпроект, поэтому к качеству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предъявляются повышенные требовани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е завершены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На участке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950 метров уложили асфальт. Ширина проезжей части составляет 7 метров – две полосы по 3,5 метра. С обеих сторон обустроили тротуары шириной 2,25 метра. Установили наружное освещение и четыре автобусных остановки.

– Работы усложнялись тем, что на участке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ы действующие инженерные коммуникации. Подрядчик выполнил переустройство сетей водопровода, канализации,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газопровода,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 рассказа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Стоимость работ составила 16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Сдача объекта был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2022 год, но подрядчик завершил капремонт ускоренными темпами.

Отметим, чт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т уложено свыше 18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сфальта.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ли участки автодороги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в границах сел Чехов и Новосибирское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и Красногорск – Томаринско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город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помимо улицы Советской,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ли участки на улицах Ленина, Украинской и 4-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Отметим, что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содержание дорог увеличили в 6 раз. В 2021 году на эти цели выделили 1,5 млрд рублей вместо 252 млн в 2020-м. Такие объемы финансовых средств позволили провести после зимнего сезона масштабный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С помощью жителей и волонтеров выявили и устранили около 8 тысяч дорожных дефектов общей площадью более 76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более 11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услугами малой авиации с начала года

Рейсы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из Шахтерска,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Зонально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 также из Зонального в Ноглики. В декабр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выполнение полетов из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и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ов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у по улучшен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Важно, чтобы наши жители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быстро и с комфортом добираться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а также перемещаться между районами. Это делает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и медицину и образование, расширяе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а и внутреннего туризм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авиации – лучший для этого вариант,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ейсы на местных авиалиниях воздушными судами пассажироместностью до 19 человек выполняет АО «Авиационная компания «Авиашельф». Полеты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по субсидируемым тарифам – от 1,6 до 2,3 тысяч рублей.

Развитие местных авиаперевозок началось на Сахалин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восстановили посадочную площадку и начали выполнять рейс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 техническими посадками в Шахтерске и Зональном. С августа этого года рейсы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напрямую.

Работа по улучшен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регион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вышаю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ыявления и лечения онкозаболеваний

В шести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становлено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зволяющее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проводить морф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операционного и биопсийного материала пациентов. Новая техника позволит специалистам оперативно получ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характере заболевания пациента, в том числе наличии онкопатолог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первым регионом в стране, в котором в единый цифровой контур патоморфологической службы объединена целая сеть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Цель этого проекта исходит из важнейшей задачи, которую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ыявления и лечения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тартовал крупнейший в России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по цифровизации патоморфологической служб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пионером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ервые результаты показывают высоку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а разработкой уже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По образцам тканей, взятых во время оперативных вмешательств или эндоскоп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пециалисты определяют, какие процессы протекают в организме человека: имеется ли зло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ли на стенках органа спрятались полипы. От того, насколько верно и быстро установлен диагноз, зависит тактика лечения пациента.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зволяет исключить некорректную трактовку исследований.

– Гистолог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операционного и биопсийного материала – очень трудоемкий процесс. Каждый этап требует времени, проводится в строго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Теперь у нас есть автоматические гистопротессоры, аппараты для окраски и покрытия гистологических микропрепаратов, новые микроскопы с блоком визуализаци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сканеры. Мы можем проводить исследование в большем количестве и лучшем качестве. Автоматизация значительно облегчает эти процессы и сводит к нулю возможность ошибки,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патоморфологического бюро Елена Веселко.

В цифровой контур включены 6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Углегорский, Холмский, Поронайский, Охинский, Тымовский. Каждый из них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по принципу меж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центра – в зоне внимания будут и близлежащи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Биолог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больше не нужно будет передавать в лабораторию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 исследование.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ся на месте.

Все полученные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в единой лаборатор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е. Благодаря запуску проекта сроки диагностики будут сокращены с 5-6 дней до 2-3, а их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может возрасти с 20 тысяч в год до любого объема.

В Холмской ЦРБ после ремонта открыли дневной стационар

В структурном подразделении больницы заменили системы водо-, тепло- и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полы и двери, а также выполнили внутреннюю отделку помещений и установили современное освещение.

Структурн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больницы размещается в здании, которое ранее принадлежало санаторию морского пароходства. Помещения уже давно нуждались в капитальном ремонте.

– Мы какое-то время поддерживали состояние помещений косметически. Люди были довольны качеством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днако условия оставляли желать лучшего – отсутствовало хорошее освещение, стены осыпались, с водоснабжением были проблемы. Теперь все существенно изменилось,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Холмской ЦРБ Светлана Мищенко.

За две смены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в дневном стационар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о 60 человек. Подразделение больницы работает в ежедневном режиме. Пациенты приходят на капельницу, физиолечение и лечебную гимнастику.

– Впервые прохожу здесь лечение – очень нравятся. Врачи хорошие, внимате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теплые, светлые и уютные,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Холмска.

Отметим, ранее в этом здании провели ремонт отделения переливания крови, а до конца года будет выполнено косметическое обновление холла 2-го этажа.

Повы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 островах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ежегодно на оснащение островных лечеб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ыделяются сотни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эмблем и девизов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курсные работы победителей и лауреатов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а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уроченных к празднованию юбилея в 2022 году. 2 январ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тмечает 75 лет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овременных границах.

Заявки и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3 декабря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75@sakhalin.gov.ru. С 24 по 29 декабря пройдет открытое интернет-голосование. 30 декабря будут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Прислать эмблемы и девизы на конкурс могут гражда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арше 14 лет,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ю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а также юридические лиц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т одного участника принимается один вариант эмблемы и/или девиза. Эмблема должна содержать символы, которые ассоциируются с регионом, быть оригинальной и уникальной, одинаково хорошо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в любом масштабе и воспроизводиться без утраты значения на разных носителях. Рисунок может быть выполнен в любой технике и представлен в растровом или векторном форматах, на бумаге или иной основе формата А4.

Требования к девизу –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емкость, запоминаемость и соответствие тематике 75-ле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необходимо заполнить заявку и приложить комментарий к работе, поясняющий ее идею.

Поддержать понравившиеся эмблемы и девизы с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на открытом интернет-голосовании. После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определит победителей и лауреатов. Авторам лучших работ полагаются дипломы и денежные премии.

С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о конкурсе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освященном 75-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75.sakhalin.gov.ru.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천지구협의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천지구협의회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적십자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17일 배추 뽑기, 재료손질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10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가 지역 내 홀몸 어르신, 사할린 가구 등 취약계층 250가구에 전달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서천지구협의회 이정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봉사하는 적십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천지구협의회는 매년 사랑 나눔 김장행사, 저소득층 구호물품 전달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남일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천지구협의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연극 '사할린의 바다' 공연 개최

강제징용 사할린 동포들의 애환과 슬픔, 희망 극화

부산시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에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연극 '사할린의 바다'를 공연한다.

연극 '사할린의 바다'는 올해 부산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작품으로, 강제징용 사할린 동포들의 애환과 슬픔, 희망을 극화했다.

일제 말기 사할린으로 집단 강제 동원된 사할린 동포들 중 69세대 120여 명의 사할린 동포가 2009년 1월 귀국해 현재 기장군 정관읍에 거주하고 있다.

연극 '사할린의 바다'는 정관읍 거주 사할린 동포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으며, 극 중 등장인물인 사할린 동포 2세 '고장석'의 기억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기장군은 감염 우려 없는 안전한 공연 제공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에 따라 공연 전 모든 입장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등록, 마스크 착용 등을 시행한다.

예매는 안데르센 극장 홈페이지에서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공연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데르센 극장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데르센 극장 전경 / 사진제공=기장군

[환경일보]

Новейшая высоковольтная линия электропередачи обеспечит надежное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е сел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ЛЭП напряжением 35 кВ «Шахтерская – Бошняково» заменит линию, построенную более 80 лет назад. Модернизация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води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пуска ЛЭП прошл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оперативно-диспетчерской службе филиала «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е сети» ПАО «Сахалинэнер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ЛЭП «Шахтерская – Бошняково» – важнейший объект для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хозяй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Это первый реализованный прое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ЛЭП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ую инициирова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хаил Гузенко.

Старая ЛЭП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около 70 километров была построена в 1938 году и была единственным источником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сел Надеждино, Тельновское, Лесогорское и Бошняково. При отключении линии предприятия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объекты, а также порт и угольный разрез оставались обесточенными.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Сахалинэнерго» много сделало для повышения надежности работы данной ЛЭП. Количество отключений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лось, однако проектные решения – длина пролетов, деревянные опоры, сцепная арматура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 не отвечают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обеспечения устойчивости работы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объекта.

Бошняково, где находятся, в том числ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объекты, теперь получает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по новой ЛЭП.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ы существующие подстанции «Шахтерская» и «Бошняково», построены две новые подстанции «Тельновская-2» и «Лесогорская-2».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чнутся работы по переподключению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Тельновское, Лесогорское, Надеждино к этим подстанциям.

– Новая линия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63 километра, в отличие от старой, построена на металлических опорах. Между ними сокращена длина пролетов. Э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большую устойчивость к ветровым и гололедным нагрузкам, – отмет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ПАО «Сахалинэнерго» Павел Яковлев.

За врем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ЛЭП энергетики установили 555 опор, смонтировали 197 км провода и 63 км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ой линии связи. Общий вес провода составил 93 тонны, металлоконструкций – 1677 тонн. Большая часть линии проходит в труднодоступной местности – в горах. Самым сложным участком для строителей стал Тельновский перевал.

Тем не мене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й ЛЭП завершилось раньше намеченного срока. Для увеличения темпов работ подря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 ООО «ДВ Энерго-сервис» – возвела в Шахтерске строительный городок. В среднем ежедневно было задействовано 90 человек, привлекалось более 100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масштабные задачи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для модерниза-

ции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й ЛЭП «Шахтерская – Бошняково» предусмотрен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ой по развитию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ой ПАО «Сахалинэнерго» (входит в группу «РусГидро»). Источникам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али соб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компании. Стоимость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материалов и оборудования составила свыше 1,1 млрд рублей.

Сахалинских грузополучателей призывают своевременно вывозить контейнеры из порта Корсаков

Вопрос о скоплении грузов обсудили на совещании, которое по поручению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провел глав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инспектор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Терентьев. Во встреч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рта, судоходных компаний, компаний-перевозчиков, ряда област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федеральных контролирующих ведомств.

– Я вчера посетил порт Корсаков, ситуац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страя. И если с морскими перевозками её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удастся разрешить, то со скоплением контейнеров в самом порту дела пока не так хороши. Наша с вами общая задача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Это в интересах как самого бизнеса, так и всех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потребителями товаров, – отметил глав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инспектор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Терентьев.

На сегодня в морских портах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с назначением на Сахалин остается 1632 TEU (один TEU эквивалентен полезному объему стандартного контейнера длиной 20 футов). Благодаря ряду мер, инициированн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ем удалось снизить вдвое. Вместе с тем на площадке порта Корсаков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около 600 TEU, при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ной загрузки в 1000 контейнеров.

– Сейчас в ожидании выгрузки на рейде Корсакова стоит судно «Янина», на борту которого 647 контейнеров. Места в порту просто не хватит. Безусловно, вывозить груз стали лучше, но пока этого недостаточно. Мы провели ряд совещаний, выясняется, что иногда владельцы грузов просто не знают, что их контейнер уже в порту.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такие ситуации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ы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разработали специальный ресурс,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отслеживать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груза онлайн, – рассказал и.о.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Всю свод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лученную от порта Корсаков и морских перевозчиков, будут заносить в специальный раздел на сай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йти сведения о груз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могут по ссылке: <https://gov.65.com.ru/logistic/>.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руководство порта Корсаков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продлить время работы по выгрузке-погрузке автомобилями компаний-перевозчиков до 22:00 часов. По заранее оставленным перевозчиками заявкам порт готов работать и в ночное время, если заявок будет не менее десяти. Напомним, что работы по выгрузке судов в порту уже с 12 ноября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в круглосуточном режиме, количество смен увеличено вдвое.

Кроме того, получено подтверждение от руковод-

ст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оссельхознадзора о готовности проверять и оформлять продукцию в нерабочее время, в том числе в выходные дни по заранее согласованному графику.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отстаивает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а по развит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сферы

Губернатор презентовал масштабные областные проекты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Транспортная неделя 2021». К отраслевому мероприятию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рупные инвесторы, которые в перспектив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звитии остро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Перед нами стоит очень важная социальная задача – существенно улучшить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региона. Для этого мы развернули масштабную работу по развитию всех видов транспорта. Возводим новый современный аэропорт с ежегодным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ом до 5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расширяем сеть местных авиамаршрутов, строим дороги, закупает современный городской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и морские суда для перевозки пассажиро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обая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региона отведена еди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В этом году перевозчик запустил новые рейсы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материком. Федера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озволило снизить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ов по 20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ожно улететь в Красноярск,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и Советскую Гавань, из Шахтерска, Ноглик и Охи – в Хабаровск.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перевозчик намерен увеличить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до 2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количество маршрутов превысит полтысячи. Кроме того, за счет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в парке компании появятся 45 новых отечественных самолетов. В будущем авиатопливо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изводи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монт крупнейшей дорожной артерии регио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В этом году ввели несколько участков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46 километров. На эти цели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1,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2022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9-километровый участок от села Арсентьевка до границы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едется обновление городск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Та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85 автобусов ездят на природном газе. Всег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едстоит обновить 331 автобус, из них 125 заменят на электробусы, остальны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На морской линии в этом году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2 новейших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х судна –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и «Павел Леонов». Каждое может перевозить более 140 человек. Суда ходят по маршруту Корсаков –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Также губернатор рассказал о планах по развитию морских портов в Корсакове, Шахтерске и Поронайске. Обновле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ъектов позволит существенно расшир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региона по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топлива и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Прием заявок в свободной форме ведется до 1 дека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Проект "Успех года" проводится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города 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интерактив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по следующим номинациям: "Стройка года", "Праздник года", "Проект года", "Признание года", "Продукт года", "Книга года", "Городской уголок", "Безопасность", "Здоровье", "Образование", "Спортсмен года".

Предложить кандидатуру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екте можно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e.ponomarenko@yuzhno-sakh.ru. В письме с пометкой "Успех года" следует указать следующие данные: номинация, Ф. И. О. и должность человека, название проекта организации, события, продукта и т. д., краткое описание достижений, ссылки на публикации или сайты (при наличии), контактные данные номинанта.

Победителями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станут участники, набравшие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голосов интернет-пользователей. Итоги проекта "Успех года" подведут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사할린주, '소원의 울카' 기획에 참여

사할린주 각 지역에서 '소원의 울카(성탄트리)' 자선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 러시아 행사에 고아원의 유·청소년들, 다자녀 및 저소득계층의 가정,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장애 청소년들, 주내 3세-17세와 60세 이상의 중증 환우들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제드 모로즈(추위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소

중한 소원을 편지로 쓰도록 하고, 편지 수집은 12월 11일(토)까지 ёлкажеланий.рф.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자선행사의 시작을 주 정부 회의에서 발표한 가운데 별도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도시 선행의 울카(성탄트리)>행사가 펼쳐진다. 관심을 갖는 주민들과 사회단체들과 기업가들에게 어린이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소원을 press@yuzhno-sakh.ru로 쓰도록 하고 있다.

축하 행사는 모든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한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проекту "Елка желаний"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акции "Елка желаний".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малыши и подростки из детских домов, многодетных и малоимущих семей,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а также тяжелобольны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от 3 до 17 и от 60 лет. Им предлагается написать о своих заветных желаниях в письмах Деду Морозу — сбор заявок ведется до 11 декабря на сайте ёлкажеланий.рф. О старте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акции объявили на совещания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роме того, отдель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акция "Городская елка добра". О своем желании исполнить детскую мечту неравнодушным жителям, обще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предлагается написать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press@yuzhno-sakh.ru.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йдут с соблюдением всех против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х мер, сообщает ПСО.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안내》

본국에서 2020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는 2022.02.23.(수)~2022.02.28.(월)간 실시 예정이며 재외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기간은 2021.10.10 ~ 2022.01.08.**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 출장소를 방문하여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 제출 또는 ▲ 인터넷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접속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신청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접속 → '재외선거신고신청' 클릭 → 성명·여권번호·주소 등을 입력, 신청 완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사할린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국외부재자 신청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